

주민 안전에 주력, 소통·참여하는 경찰서장 구현

현장 활력에 '은 힘' 공동체 치안활동 노력

윤중섭 총경이 제72대 무주경찰서장으로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다. 윤 서장은 2017년 12월 27일 부임 이후 '주민이 안전하고 소통과 참여하는 든든한 무주경찰' 구현을 목표로 내 부적으로 현장 활력에 힘쓰고, 밖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에 노력을 하고 있다.



▲주민안전 공동체 치안과 인권보호 노력

무주는 농촌지역 특성상 고령인구가 많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계절별 범죄예방과 현안으로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 정확히 전달하고 그에 대한 예방과 대책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단순한 순찰과 캠페인만으로 범죄예방 홍보에 있어 한계를 느낀 윤 서장은 '치안알리미'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치안알리미'는 추진 중인 치안시책과 범죄 예방법 등을 지역주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을 방송시설을 이용해 홍보하는 윤 서장의 대책이다.

그리고 무주경찰은 주민의 요구에 맞는 순찰을 실시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순찰 요청장소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순찰 장소와 순찰 시간을 설정, 순찰체계를 전환해 한층 더 세밀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변보호 4건, 임시숙소 제공 2건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사건 초기부터 맞춤형 피해회복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 시도

군청과 교육청, 교직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개학기 학생 교통안전·학교폭력 예방 합동캠페인' 활동부터,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한노인회와의 MOU체결, 교통사고 다발지역 4개소에 대한 과속카메라 설치 추진 등 어르신과 학생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나이가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주의보'를 자체 발령하고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VMS(대형전광판)를 통해 안전문구를 송출하고 있으며,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와 농기계, 이륜차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불철 해빙기·농번기를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무주경찰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하고 시간에 맞춰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보호 등 민생치안 확립

계속되는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사전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 안전한 밤거리 보행을 위해 범죄 취약지 6개소에 '로고젝터'를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야간 보행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인 블랙박스 내장된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 협의 중이다. 스마트 가로등은 기존 가로등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실시간 촬영·녹화돼 범죄 예방과 더불어 CCTV 역할로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 예방에 나아가 범인검거 행사활동 또한 도내 최상위를 달리고 있다. 4대 범죄 검거율은 104%로 전라북도 내 1위를 유지하고, 강절도 피해 회수 또한 11건으로 도내 3위로 검거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노력하는 무주경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내부 화합을 위한 소통

직원 사기가 남다른 윤 서장은, 계급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내부소통을 위해 이를 과감히 철폐시키는 과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다. '함께 즐겁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라는 목표로 내부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윤 서장은, '현장 활력 TF팀'을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 현장 직원들과 자리를 갖고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익명이 보장되는 내부 소통함을 만들어 직원들의 진심을 귀담아 듣고, 내부 포털 사이트에는 무주경찰 소통방을 개설해 지역경찰의 의견을 세심하게 청취하며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불필요한 업무와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근무환경 개선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직원들과 소통 활동



개학철 학생안전 캠페인



이동학대 유관기관 간담회



이 같은 윤서장의 주민 중심·소통의 치안리더십 아래, 무주경찰은 100일이라는 시간동안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경찰로써 자리매김하고, 100일을 넘어 1,000일까지 무주 주민의 안전과 내부 직원들의 만족감을 계속해서 지라날 것으로 보인다.

윤 서장은 "지금의 무주경찰은, 무주 군민들

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의 무주경찰이 나아갈 방향은 권위적인 경찰이 아닌, 국민의 필요와 요청에 맞춰 움직이는 경찰, 즉 주민우선 시대에 걸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는 것이다. 또한 내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는 취임 100일의 의지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원 지식보급 5,733,677,999
...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원선) (민원선)

홍보대사 류수영